

북한을 위한 기도

2026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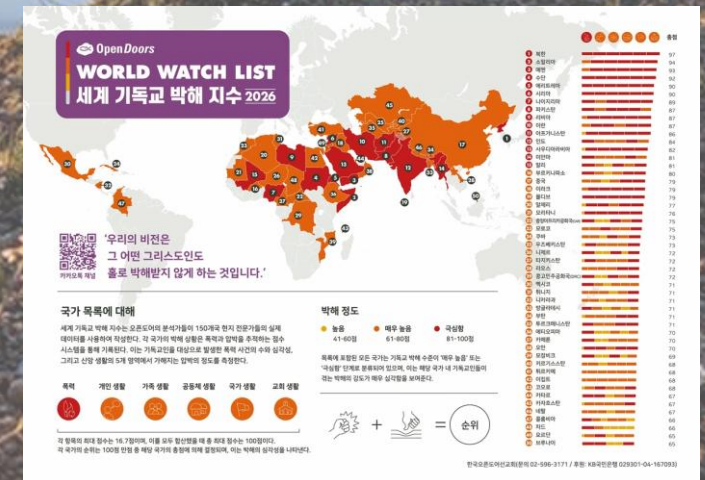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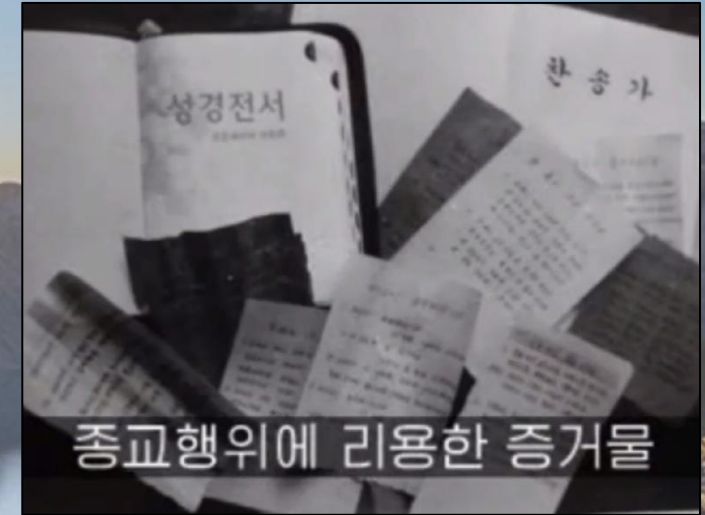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북한은 더욱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억압이 심해졌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적극적으로 자행되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기뻐하며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교회 성도와 강제 북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갇혀있는 성도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연좌제로 함께 처벌받거나 추방 당한 지하 성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년만에 귀환한 장문석 집사

3. 북한이 긍정적 방향 전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2월 말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의향이 있음을 밝혔지만, 남한은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배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핵무력 증강을 강조하고, 김정은을 총비서로 재추대하며 기적의 시대를 열어가는 '천하제일 위인'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보여진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 강화와 핵무력 증강이 기독교 박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미국과의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진전되고, 예배의 자유를 비롯한 주민들의 권리가 신장되도록 기도합니다.



4. 동북아의 평화와 북한선교현장의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과 미중 및 중일 갈등 등으로 혼란스러운 외교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이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중국은 일본에 주요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한일령’을 발동하면서 양안 문제가 동북아의 중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와 원활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한국 역시 외교적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국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북한 선교 사역은 국제 관계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한 사람과의 접촉점이 더욱 확대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 간 갈등이 선교사의 체류와 사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5.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북한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3% 이상의 경제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 속에서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민생 경제 증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경제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당국의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서민들의 경제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전한 각종 노력 동원과 세외부담도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입니다.

어려운 민생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통받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8. 제3국 북한 선교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북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는 현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사역자가 붙잡혀 당국에 의해 조사받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